

제13편 - 덕소신앙촌 시대 <제1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54회)

제13편
 덕소신앙촌시대 <제1부>
 - 제2 신앙촌인 덕소신앙촌
 1) 덕소신앙촌 건설 당시의 상황
 2) 제2신앙촌의 건설(덕소신앙촌)
 二. 덕소신앙촌은 해와이긴자 회복의 상징
 三. 144,000의 왕의 수

다) 격암유록 무용출세지장의
 일남일녀(一男一女)
 一人鷄龍開國起功之臣十人生產
 일인계룡개국기공지신십인생산
 一男一女辰巳真人
 일남일녀진사진인

“한 사람이 하늘 나라를 개국하기 위하여 공을 이루는 신하가 와서 이기신 하나님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낳아 키우시니 곧 진사진인이시다.”

한 분이 오셔서 이기신 하나님(十人=이기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으로 오시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낳으니 이분이 진사진인(辰巳真人)이다. 즉 구세주 정도령이라고 한 예언이다. 여기의 한 남자와 한 여인은 성경 상의 아담과 해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여인은 둘째 천국이자 2천 년 성이 되시는 두번째 하나님으로 출현하는 해와하나님이다. 그리고 제2 신앙촌의 상징적인 주인공이다.

3)제2 신앙촌 제단벽에 조각된 여인나체상의 의미
 박태선 영모님은 제2 신앙촌으로 옮겨오신 후 모든 체제를 여인 중심 체제로 바꾸어 놓았다. 모든 간부들을 여인으로 세운 것이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및 각 공장장 등 간부들을 다 여인들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때 영모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모 장로를 시켜서 여인

의 나체를 상징하는 조각을 서울대학교 모 교수에게 의뢰해서 만들어 오라는 것이다. 그 장로는 순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으나 영모님께 감히 물어 볼 수가 없어서 시키는 대로 조각을 해온 후 영모님을 아주 떠나버렸다.

왜냐하면 영모님 말씀의 골자는 ‘눈 길로나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영모님은 지금 여인의 나체상을 만들어 성전 정면 벽에 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장로는 영모님이 이제는 은혜가 떨어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인의 나체조각상의 상징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죄를 완전히 벗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상징이었다.

제2 신앙촌은 두번째 이기신 하나님으로 성공리에 출현하신 해와이긴자의 상징이라고 이미 설명을 한 바 있다. 제2신앙촌의 모든 것은 여인인 해와이긴자를 위한 체제로 전환을 시켰고 또 해와이긴자의 승리를 경축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영모님은 해와이긴자가 승리하여 출현 하심을 경축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제단 정면 벽에 ‘한 여인이 죄를 완전히 벗고 의인이 되어 출현했다’라는 내용을 상징하는 여인의 나체상을 조각해서 붙인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것이 여인의 나체를 조각한 것인지 전연 알 수가 없는 추상적인 조각이다. 영모님은 두번째 이기신 하나님인 해와 하나님의 출현을 알리는 대 경축(慶祝)행사를 덕소신앙촌에서 하고 계신 것이다.



덕소제단 전경

그런데 왜 영모님은 그와 같은 이기신 해와 하나님의 출현이라는 경축의 대축제를 신앙촌 사람들과 다 같이 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누구도 알 수 없게 가려서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6000년 만에 계획한 극비작전이었기 때문이다. 영모님은 당시는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면서서 마귀를 속이고 계셨다. 그런데 만일 이때 제2 신앙촌에서 두번째 하나님이 이기시어 출현했다고 인간들에게 다 알려놓으면 마귀도 알아차려서 방해할 놓아 세번째 승리의 하나님인 구세주의 출현 계획을 실패로 끝하게 만들 것이다. 하여 영모님은 철저하게 마귀를 속이기 위해서 인간들을 철저히 속여야만 했던 것이다. 인간들이 알면 인간들 속의 마귀들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또 그와 같이 되면 세 번째로 출현할 완성자 구세주의 출현이 원천봉쇄되어 성공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三. 144,000의 왕의 반열에 참여할 수 (數)?

1) 144,000의 수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예언되어 있는 144000의 수는 왕의 반열에 든 수라고 하였다. 144000의 수는 재림하는 구세주를 살아서 맞이하여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수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전 신앙촌과 전도관 교인들은 이 144000의 왕의 반열에 드는 것이 최고의 신앙 목표였다. 신앙촌에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려고 애를 쓴 것도 신앙촌에 들어가야 누구보다도 더 빨리 이루어져서 이 144000명의 왕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모님은 144000의 수만 채워지는 것은 약조건이요(목14장) 144000수 외에 많은 흰 옷입은 무리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호조건이라고 하였다(목7장). 그러나 전 전도관 교인들은 약조건이 되건 호조건이 되건 상관없고 오직 144000의 수에 들기만 할 수 있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달렸었다.

2) 144000명 중 140000명의 수가 채워진 덕소 신앙촌

왕의 반열은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같이 천년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그런데 영모님은 덕소 제2신앙촌에 오신 후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144000명 중 140000명이 채워졌다고 하시는 기절할 것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영모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놀라 까무러칠 정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4000의 수만 채우면 144000의 수는 다 채워진다고 하시는 것이다. 144000명의 수는 순교자의 수를 포함해서 채워진 수라고 보충 설명을 하셨다. 물론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말씀이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다(묵20:4)”라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와 살아 있는 영모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포함되어 144000명의 수가 채워진다고 생각들을 하였다. 다들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144000명 중 4000명만 채워지면 수가 다 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4000명이라면 너무나 적은 수만 남은 것이다. 그것도 순교자들의 수까지 합쳐서 되는 수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제 도저히 그 수에 들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기가 죽어 있었다. 달

쫓긴 개 자봉만 쳐다본다는 속담처럼 영모님을 따르면서 신앙촌에도 제일 먼저 들어가서 영모님 뒤를 바짝 따라가면서 생명을 걸다시피하며 이겨 나가려고 한 것은 왕의 반열을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 왕의 반열에 드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였다. 낙심이 되는 생각들이었다.

3) 144000수의 비밀(秘密)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독자들까지 이 144000수의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밝혀보기로 하겠다. 영모님은 “세 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이다(82.3.8 말씀)”라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아담과 해와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被造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모님께서는 분명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요, 하나님 자체가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사람이 사는 곳은 사람의 나라다. 고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는 기록을 보아 분명 하나님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인 이상 그의 자손들도 분명 하나님이다. 다만 선악과로 인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이 마귀의 종이 되어 인간이 되었을 뿐이다. 이후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되시어 삼신일체로 완성되시기 위하여 비밀리에 움직이셨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베일에 싸여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가려서 예언서를 기록해 놓아 주인공이 아니면 풀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36회

賽三五(二) 새삼오

惡臭永無全消
 악취영무전소

악취가 영원무궁토록 완전히 소멸되도다.

※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는 구절과 일맥상통

中動不知未動之死
 중동부지말동지사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죽음의 세상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중입자(中人者)는 구원을 받게 되나, 중간에 들어오는 때를 알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들어서서 구원받고자 하는 말입자(未入者)는 죄(罪)를 해결할 시간이 부족하여 죽고 마는구나!

人皆心覺不老永生 인개심각불로영생
 從之弓永無失敗 종지궁을영무실패

모든 사람들이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가르침을 경시하지 말고 마음으로 깨닫고, 궁을십승 즉 진인을 따르면 영원히 잘못되거나 그르치는 일이 없이 만사형통(萬事亨通)하리다.

백제장군 조희성님이 하나님으로 원시반본 후 다시 오실 때에는 황제장군으로 재생하리

我國東邦萬邦之避亂之方
 아국동방만방지피란지방
 民從從天受大福 민건종시천수대복
 不失時機後悔莫及矣 불실시기후회막급의

동방의 우리나라는 세계만방의 피란지요. 백성들이 감람나무를 보고 따르면 하늘이 내리는 큰 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구원을 받는 중입의 때를 놓치면 후회막급하리다.

賽四一(一) 새사일

列邦諸人緘口無言
 열방제인함구무언

세계 열방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할 말이 없도다.

※ “섬들이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다.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 성경 이사야 41장 1-9절 참조

火龍赤蛇 화룡적사

화적(火赤; 오행과 오색을 방위로 표현할 때 남방에 해당) 즉 남조선(南朝鮮)에서 용사(龍蛇; 말문론에 ‘용사지인불면옥龍蛇之人不負獄’이라고 한 바 반드시 옥고를 치른 사람을 가리킴)가 출현하네.

※ 삼신오제본기(三神五帝本紀)에는 오행(五行)을 수화목금토(水火木金土)의 순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하도낙서 육도삼략(河圖洛書 六韜三略)에 후천(後天河洛陰符圖章 二略의 三韜와 四韜)의 수운(水雲) 최계우(崔濟愚 五十四宮之運) 선생과 화운(火雲) 강일순(姜一淳 三十六宮之運) 선생을 이어 마지막 중천(中天河洛陽符圖章 三略의 五韜와 六韜)의 목운(木運) 박태선(朴泰善) 선생과 금운(金運) 조희성(曹熙星) 선생으로 이어지는 계보와 일치한다. 수화목금토(水火木金土)의 오행(五行)을 색깔과 방위로 나타내면, 수(水)는 흑(黑)으로 북방이요, 화(火)는 적(赤)으로 남방이요, 목(木)은 청(靑)으로 동방이요, 금(金)은 백(白)으로 서방이다. 그리고 토(土)는 황(黃)으로 중앙에 위치한다.

大隆東邦海隅半島 대륙동방해우반도
 天下—氣再生身 천하일기재생신
 利見機打破滅魔 이견기타파멸마
 人生秋收槽米端風驅飛 인생추수조미단풍구비
 槽風風之人 조표풍지인
 弓乙十勝 궁을십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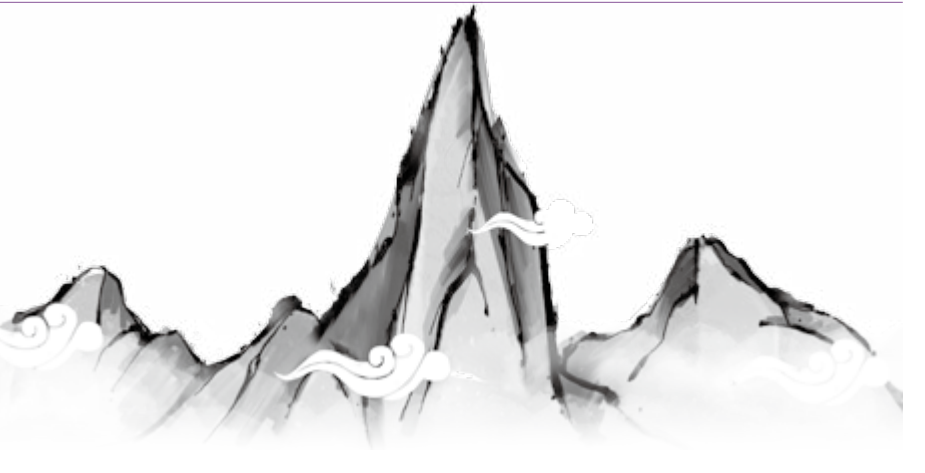
동방나라 한반도에서 천하의 기운을 받아 다시 태어난 분이 조(曹)씨 성으로 오시며 또 인생들을 한 번 척 바라봄으로서 바라보는 순간 마귀를 박멸 소탕하는 궁을십승(이기신 하나님)이로다.

※ 人生秋收槽米端風驅飛 槽風風之人 弓乙十勝. 인생을 추수하러 오시는 구세주는 지게미 조(槽)에서 쌀 미(米)자를 바람 끝(端風)에 몰아(驅) 날려(飛)보내면 무리 조(曹=曹)만 남게 되니 구세주는 조씨 성으로 오시는데, 지게미 조(槽)에서 쌀 미(米)자를 회오리바람(颶)에 날려 보낸 사람 즉 조(曹)씨가 궁을십승(弓乙十勝)이다. 그밖에 불경 미륵진경에도 “하늘의 조씨가 중생들을 심판하고 구원한다(敕罪天曹救衆生사죄천조구생)”고 예언해 놓았다.

轉白之死黃腹再生
 전백지사황복재생

금운(金運)으로 오신 백제장군(白帝將軍) 조희성님이 전(胤)전(胤); 하나님으로 원시반본)한 후, 다시 오실 때에는 중앙무기오십토(中央戊己五十土) 황제장군(黃帝將軍)으로 재생하리다.

※ ‘轉白之死黃腹再生전백지사황복재생’의 백(白)과 황(黃)은 격암유록의 「가사총론」에서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데, ‘백(白)’은 금운(金運)인 백제장군(白帝將軍)이며 ‘황(黃)’은 중앙무기오십토(中央戊己五十土) 황제장군(黃帝將軍)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轉白之死전백지사’의 전백(轉白)이란 백제장군이 죄를 담당코자 빌려 입고 있던 인간의 몸을 도로 벗고 본래 하나님의 빛으로 변했다(轉) 빛을 전 cf. 轉



迷開悟전미개오 / 변할 전 cf. 轉禍爲福 전화위복)는 뜻을 알 수 있다. 표현적으로 백제장군 의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생안 양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병원계단에서 굴러 넘어졌으며(轉) 굴러 넘어질 전) 그 다음날 보광(普光)하셨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인이 죽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라고 내다본 격암 남사고 선생은 ‘轉白之死전백지사’에 죽을 ‘사死’자를 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인즉, ‘轉白之死전백지사’ 다

볼 수 있다. 백제장군 조희성님이 보광하신 후, 황제장군으로 다시 오시는데 ‘황복(黃腹)’의 이치로 재생함을 알 수 있다. ‘복(腹)’은 우주의 중심이자 회복된 에덴동산으로 토운(土運) 자리를 의미하며, 동시에 ‘마음 복(腹)’이라는 한자를 파자(破字)하여 뜻을 살피면 다시 오실(又) 조희성(人)님은 찬란한 빛(日)의 모습인 영체로 나타나 되 얼굴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회복된 조희성님 모습(月=肉) 그대로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吉星照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라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